

제 1편: 동양정치사상의 연원과 전개

1. 정치사상 입문 서설

(1) 사상의 성립과 발전

사상이란 인류가 처한 환경에 대한 의식반응(conscious responses)이라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사상이란 인간이 지닌 사유 능력의 소산으로서 그것은 인간이 생활환경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부딪혔던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짜낸 지성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의 소산으로서의 사상은 회의(doubt)와 혼란(perplexity)에서부터 발생한다고 존 두이는 그의 『사유방법』이란 저서에서 지적하였고, 플라톤은 경이(wonder)에서 생긴다고 하였다.

사실상 뉴우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일월의 운행과 땅으로 떨어지는 능금을 보았지만, 그들은 그러한 현상에 대하여 회의하지 않았고, 지성사에 있어서 하나의 혁명적인 저서라 할 수 있는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오기까지 인류는 동·식물과 생존을 같이하여 왔지만, 자연도태에 의한 진화의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역사상 인류는 자연현상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품고 고민하였을 때, 해결의 실마리(사상)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그것을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사상이란 다름 아닌 그 사회가 당면한 과제나 당면할 문제에 대한 해석이자 답안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통상 사상의 체계적인 형성을 학설이라 하고, 이러한 학설을 전후하여 발전·성립된 것을 학파라고 한다. 그리고 사상의 편면이 전체적으로 체계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것을 일러 사조라 한다. 그러나 흔히 이상의 3자를 통칭하여 사상이라 부른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시·공간)의 소산인 사상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상도 변한다. 마치 역사가 간단없이 흐르는 물과 같이 계속되는 것처럼 어떠한 사상도 반드시 그 기원으로서의 배경을 갖는다.

그러므로 사상사란 사상의 역사적인 흐름의 체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코 진공 상태가 아닌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사회 속에서만 발생되기 때문에 소위 정치사상이란 정치적인 문제, 경제사상은 경제적인 문제, 군사사상은 군사적인 문제, 철학사상은 철학적인 문제, 과학사상은 과학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회로부터 성립된다고 하겠다.

(2) 사상의 연구방법—사상사에 대한 연구방법으로는 교의사(history of doctrine)적인 연구방법과 관념사(history of ideas)적인 연구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교의의 역사적인 발전을 추적하는 사상사 연구로, 예를 들면, 기독교의 교의사, 유교의 유학사, 불교의 교의사 등을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사상사 연구가 결과적으로 이미 분화된 특정 학설의 발달사를 그 내용으로 하게 되어 특정 학설의 관념형태를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여러 관념들을 그 시대의 정치적·사회적 기초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그들 관념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추적하게 된다. 그리하여 한 시대 또는 수대를 지배한 관념들이 어떻게 작용했고, 그들 관념들이 시대와 사상가들에 의해 어떻게 변용 되어 갔는가를 추적한다. 동시에 그 시대의 정치적·사회적 기초가 이들 관념들을 어떻게 특징지어 갔으며, 여러 관념들은 같은 시대의 정치적·사회적 기초를 어떻게 방향 지어 갔는가 하는 상관성에도 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연구방법은 한결같이 장·단점을 공유하고 있다. 관념사적인 연구방법은 사상과 사상 사이의 관계를 중시함으로써 관념의 분석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관념의 역사적인 문맥을 소홀히 하여 사상의 시대성과 사회성을 쉽게 관찰할 수 없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교의사적인 연구방법은 사상과 행위 또는 사건간의 관계를 중시함으로써 통계분석·수량화를 통하여 사상가들의 개별적인 발전을 분류할 수는 있으나, 사상의 내재적인 구조와 사상과 사상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석할 수 없으므로 사상의 특성과 연계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특히 최근 정치사상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방법으로는 스킨너와 포카에¹⁾의해서 주창된 이른바 정치언어의 역사적 연구방법이란 것이 있다. 이들 양인의 연구 관심은 정치사상을 일종의 언어행위(speech-act)로 간주하는 인식 위에서 과거의 정치사상적 저술이나 발언에 숨겨진 저자의 의도를 ‘있었던 그대로’ 찾아내는 것을 정치사상사 기술의 핵심적 요소로 보는 데 있다. 요컨대 여기서는 정치적 담론(political discourse)의 언어 세계를 분석·구명하는 것이 정치사상사 연구의 핵심적 과제가 된다.

사실상 한 사회의 정치언어는 어떤 점에서 사상가에 억압적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그에게 있어서 자기표현의 수단이기도 하다. 또한 한 사회의 정치언어는 그 안에 사는 사상가의 개인적 의도에 선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왜냐하면 “그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

1) James Tully, ed., *Meaning and Context: Quentin Skinner and his Critics*, Princeton Univ. Press, 1988 및 J. G. A. Pocock, “The Origins of Study of the Past: A Comparative Approach,”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IV, No. 2, 1962 참고.

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의 말이 성공적인지 아닌지, 그가 무슨 말을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는지”²⁾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상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 사상가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언어세계’를 찾아내어 그것이 어떻게 작용했는가와 발언의 종류와 양태를 제한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사상사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의 영향—어떤 사상가도 그가 살고 있던 사회의 실제적인 상황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무도(無道)의 사회를 목도한 공자는 유도(有道)의 사회 건설을 위해 문물제도가 완미하였던 성주(盛周)로의 복고를 염원하면서 종주(從周)의 입장을 취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플라톤이 공처(公妻)를 주장하게 된 것도 당시 고대 그리스가 여자 노예를 재산으로 간주하던 사회 습관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상가의 사상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가 살던 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 학파의 영향—사상가의 사상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존의 학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엄격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는 완전한 창조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찍이 한비자는 그의 현학편에서 ‘자장의 유’·‘자사의 유’를 말하였고, 홉스·록크·루소 등은 한결같이 사회계약설을 말하면서도 홉스는 절대군주제를, 록크는 입헌정체를, 그리고 루소는 직접민주정체를 각기 주장하였던 것도 그들 3인이 받은 학파의 영향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셋째, 개성의 영향—사상가는 사회나 학파의 영향 이외에도 그들 특유의 개성상의 특성이나 자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예를 들면, 퇴계와 율곡은 다 같이 주자학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퇴계가 정치적 이상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데 반하여 율곡은 정치적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도 전자의 개성이 ‘정순온수(精純溫粹)’ 한데 비하여 후자의 개성은 ‘탄이영과(坦易英果)’ 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J. 밀이나 J. S. 밀 부자는 다 같이 벤담의 공리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아버지 밀은 그 일생동안 공리주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아들 밀은 그 생애 후반에 이미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철학적 급진주의의 지도자로 활약한 바 있는데, 그것은 곧 벤담주의의 수정을 뜻한다. 그가 벤담주의의 수정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개성이 비교적 활달했을 뿐 아니라, 즐겨 비판하는 그의 성격 때문이었다.

끝으로 사상가들의 사상을 이해하려 할 때,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점에 유의하면서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는 ㉠ 그들 사상가들이 주장한 주요 내용과 핵심적인 개념(관념)이 무엇이나 하는 점과 ㉡ 그들 사상을 역사적인 문맥에서 볼 때, 어

2) J. G. A. Pocock, *Politics, Language & Time: Essays on Political Thought and History*, Chicago and London; The Univ. of Chicago Press, 1989, p. 25.

떻게 변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㉔ 그들이 문제시하여 주장한 그 자체에는 어떤 오류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주의한다면, 그들 사상가들의 사상적 성격과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